“성공 이끌어준 150만 광주시민 자랑스럽고 고맙다”

조직위원장 이용섭 광주시장 인터뷰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 찬사

FINA·참가 선수들 한목소리

조직위·공무원·시민과 함께 뿌듯

총사업비 평창올림픽의 5.24%

기존 경기장 활용 선수촌 재건축

저비용 고효율 대회 비결

일주일후 마스터즈 수영대회

등록 선수만 6000명

지역경제 효과 본대회 보다 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이번 대회의 성공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회 성공의 주역은 150만 광주시민이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회 기간 중 30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1만2000여명의 시민서포터즈를 비롯한 모든 광주시민의 결집된 힘이 이번 대회의 성공 원동력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7일 간의 열전을 마치고 지난 28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 열린 국제대회 중 가장 적은 예산으로 치러졌지만, 대회 주최인 국제수영연맹(FINA)과 참가 선수단으로부터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라는 찬사를 받았다.

대회 유치에서부터 정부의 인색한 예산 지원 등으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다. 하지만, 광주시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저비용 고효율 국제대회’라는 성공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이용섭 시장과의 일문일답.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과 주최 도시 시장으로서 세계수영대회를 마친 소감은.

▲지난 7월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의 대장정이 끝났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 우리 시민들이 자랑스럽고 너무나 고맙다. 이번 대회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본다. 30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1만2000여명의 시민서포터즈, 150만 광주시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정치권, 경찰, 군인, 공무원 등 관계기관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대회 성공에 힘을 보탰다.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한번 광주의 저력을 보여준 150만 광주시민들께도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폐막했다. 대회 조직위원장으로서 이번 대회 평가를 한다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평가는 주최 도시인 광주시가 할 수 없다. 더군다나 대회 조직위원장인 제가 직접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회 주최기관인 국제수영연맹(FINA)과 참가 선수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이번 대회를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라고 찬사를 보내줬다. 그래서 그동안 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며 고생해온 조직위원회 관계자와 광주시청 공무원, 광주시민 모두에게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FINA와 참가 선수단이 이번 대회를 성공 대회로 평가한 요인은 무엇인가.

▲FINA와 참가 선수단은 성공 대회의 요인으로 네 가지를 지목했다. 우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와 선수단이 참가해 수영대회의 위상을 높인 점을 꼽았다. 이번 대회에는 194개국 7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또 하나는 경기장 시설이 역대 개최지에 비해 훌륭했고, 선수촌이 최고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수영 종목이 1000분의 1초를 경쟁하는 기록 경기인 만큼 참가 선수단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수촌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호평을 받았다. 여기에 안정적인 조직위원회의 경기 운영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 등 30개의 신기록이 쏟아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본다. 특히 FINA 임원들과 참가 선수단은 대한민국 국민과 광주시민들의 따뜻한 환대와 친절, 깨끗한 도시 환경에 감동을 받았다고도 했다.

-대회 기간 중 태풍이 불고 무더위가 닥치는 등 날씨가 예측 불허였는데.

▲대회가 일주일째 접어들 무렵 태풍 ‘다나스’ 북상 소식에 모두가 긴장하고 걱정했다. 특히 야외에서 진행되는 여수 오픈워터수영, 수구, 하이다이빙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FINA측과 선수들의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광주시와 조직위는 태풍 소식에 곧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모든 조직을 총동원에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경기장별로 경찰과 소방, 민간 안전요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집중 점검을 하고 태풍에 대비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마지막 25㎞ 경기가 치러진 오픈워터수영은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끝났고, 다음날 새벽 태풍이 광주까지 오지 않고 남쪽 바다에서 소멸하면서 안도를 했다. 이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졌지만, 대회 시작 전부터 가림막과 쿨링포그, 얼음생수 제공 등 선수와 관람객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 있어서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처했다.

-어느 대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가 됐다. 비결이 무엇인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대회 중 하나다. 그러나 수영대회 총사업비는 2244억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5.24%, 2014 인천아시안게임 대비 11%,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대비 36.3%, 2011 대구육상선수권대회 대비 62.8%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또 국내외 많은 도시들이 국제행사를 치른 후 사후 시설관리 및 활용문제나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으로 후유증을 앓는 경우가 많아서 광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욱 컸다. 하지만 광주는 기존 경기장 시설들을 적극 활용하고, 임시수조 등 최소한의 시설만 보완했다. 다만 주경기장인 남부대 수영장만 메가 스포츠 규모에 맞게 관람석을 기존 3300석에서 1만1000석으로 늘렸다.

또 선수촌은 광주 광산구 재건축 아파트를 활용하고, 대회가 끝난 후 일반시민들에게 주거공간으로 분양할 예정이라 사후 관리에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번 대회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물품 7억5000여 억원어치 상당을 재활용해 ‘알뜰 대회’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수영 불모지에서 수영도시 광주,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으로서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레거시 사업은?

▲이번 대회의 성공개최는 수영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세계적인 수영스타들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많은 시민과 국민이 수영이 얼마나 짜릿하고 즐거운 스포츠인가를 몸소 경험했다. 수영 불모지의 오명을 벗고 수영도시 광주로, 수영강국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대회 성과를 기반 삼아 수영 인프라 구축과 수영인구 저변확대를 통해 엘리트 선수 육성, 수영 지도자 양성, 수영의 대중화, 생존수영 확대에 광주가 앞장서겠다. 정부와 협력해 한국수영진흥센터(가칭)를 건립하고 내년부터 수영스타 등용문이 될 수 있는 (가칭)광주수영선수권대회, 수영 동호인들을 위한 (가칭)광주수영마스터즈대회 개최를 적극 검토하겠다.

-일주일 후 수영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마스터즈대회가 열린다. 국가 대표선수들이 참가하는 수영선수권대회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는 8월 5일부터 18일까지 하이다이빙을 제외한 5개 종목 59개 경기가 열린다. 등록된 선수만도 6000여명으로 선수권대회 2700여명에 비해 두 배 이상이다. 선수권대회가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치열한 우승경쟁이었다면, 마스터즈대회는 세계 수영 동호인들 간에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다. 그래서 수영대회 보다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다. 6000여명이 선수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광주 곳곳을 다니고 숙박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수영대회 보다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마스터즈대회는 어떻게 준비하나?

▲조직위원회는 마스터즈대회 성격에 맞게 자원봉사자와 시민서포터즈 역할을 재정비하는 등 운영 체계를 전면 재조정하게 된다. 참가자들이 경기를 즐기면서도 광주의 멋과 맛을 즐기는 대회로 만들겠다. 기존의 관광상품과 각종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을 강화해 참가 선수들과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문화도시 광주, 의향·예향·미향 광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 개최한 광주, 이 동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대회를 통해 결집된 역량을 수영도시 광주, 광주형일자리 사업 성공, 4차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이어가겠다.올 여름 194개국 1만 5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광주를 찾았다.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고, 광주를 찾는 사람들은 의향 광주의 정의로움, 예향 광주의 전통문화예술, 미향 광주의 맛깔스러운 음식을 경험하고 돌아갔다.

앞으로 광주다움을 상품화·브랜드화·산업화해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광주의 매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광주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29일 훌리오 마글리오네 국제수영연맹 회장을 환송하고 있다.

지난 20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조선대학교에 설치된 하이다이빙 경기장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